

# 백원국 차관 ‘안전한 하늘 길 위해 항행시스템 24시간 성능유지 강조’

## - 1일 비행검사 항공기 탑승… 울릉·가덕도 등 신공항 예정지 비행안전성 점검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일(금) 오후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새롭게 도입된 비행검사 항공기에 탑승, 신공항 예정지 하늘에서 비행안전성을 점검하였다.
  - 국토교통부는 미국으로부터 ‘91년에 항공기와 비행검사 업무를 인수하여 전국 민(民), 군(軍) 공항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.
    - \* 레이더 등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
- 백 차관은 노후된 비행검사 항공기(기령 28년)을 대체한 신형 비행검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당부하면서,
  - “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레이더, 통신, 착륙시설, 항공위성 서비스(KASS)\* 정밀위치정보 등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24시간 제대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검사·관리하여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    - \* GPS 위치오차를 보정(15~33m → 1~1.6m)하여 항공위성에서 전 국토에 서비스
- 이어, 백 차관은 비행검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건설 중인 울릉도 공항과 대구·가덕·제주 등 신공항 예정지 공역 상공을 비행하면서, 항행안전시설 신호강도 등 전파환경을 점검하였다.
  -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“신공항 건설은 국민의 이동 편의 확대,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,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부의 역점사업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12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